

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입에 따른 사서인력 확보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Implementation on Librarian Staffing

김효윤 (Hyo-Yoo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입에 따른 사서인력 영향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설계 | |

요약: 본 연구는 2022년 12월 도입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사서인력 확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등록제 시행 전후 각 3개년(2019-2021, 2022-2024)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사서인력의 양적 변화를 추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서의 증가 패턴 및 비중 변화를 구분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각 3개년 기간 동안의 증가율과 고용형태별 구성비 변화를 통해 등록제 시행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여 등록제 시행과 고용형태별 증가 패턴 간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찰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등록제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의 당초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를 제시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제 시행 이후 사서인력 확충의 실제 패턴을 고용형태별로 분석하여 정책 의도와 실제 성과 간의 일치성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등록제, 사서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introduced in December 2022, on librarian staff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for three years before (2019-2021) and after (2022-2024) the implementation, the study tracked quantitative changes in total librarian staffing and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growth patterns and compositional changes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librarians.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registration system on employment structures through growth rates and compositional changes by employment type during each three-year period. To this end, a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was conducted to statistically verify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growth patterns by employment type,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observed chang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policy effec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identified discrepancies between the policy's original goals and actual outcomes, and deriv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validates the alignment between policy intentions and actual outcomes by analyzing the actual patterns of librarian staffing expansion by employment typ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KEY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Librarian Staffing, Regular Employment, Non-regular Employment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도서관 사서(vivajudo@korea.kr / ISNI 0000 0005 0681 9508)

- 논문접수: 2025년 11월 19일 • 최초심사: 2025년 12월 3일 • 게재확정: 2025년 12월 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205-222,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4.202512.205>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도서관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관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전문 인력 배치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시설이나 장서와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영석, 201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난 수십 년간 양적 확산을 통해 도서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영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공공도서관 정책은 주로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특히 전문 인력인 사서의 부족 문제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고질적 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 저하와 이용자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효윤, 2022).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등록제는 도서관 설립·운영의 체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시설·장서·사서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서관만을 정식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도서관만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전환을 의미한다. 등록제의 핵심은 기존의 권고 수준에 머물던 사서 배치 기준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서인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운영평가 제외 등의 실질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등록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나은엽, 이세나, 2024).

등록제의 핵심 취지는 전문 사서인력 확보를 통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만성적인 사서인력 부족 문제가 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상황에서, 등록제는 사서 배치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이다. 등록제는 도서관 운영의 최소 기준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보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허브이자 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등록제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이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등록 기준 충족을 위한 사서인력 확보가 단순한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고 있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등록제 도입 전후 사서인력 고용패턴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등록제 시행 전후(2019-2021 vs 2022-2024)의 사서인력 변화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등록제 시행이 사서 고용구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등록제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

1991년 254개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24년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기준 공립 공공도서관 1,268개관으로 확충되었고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공공도서관 연도별 현황

연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수	지자체 소속 도서관 수	합계
1991	206	48	254
2000	219	180	399
2006	227	317	544
2009	229	457	686
2012	232	576	808
2016	231	758	989
2018	233	840	1,073
2020	235	914	1,149
2021	235	949	1,184
2022	235	976	1,211
2023	235	1,008	1,243
2024	234	1,034	1,268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급격한 증가이다. 1991년 48개관에서 2024년 1,034개관으로 21.5배 증가하여, 전체 증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별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문화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구조적 한계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첫째, 시설 중심의 확충 정책으로 인한 운영 인력의 상대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 건립 시 시설과 장서 확보에 집중하면서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이는 개관 후 운영 단계에서 사서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접근이 비정규직 채용 증가와 민간위탁 운영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곽동철, 2007).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 건립이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둘 때 따라 운영 계획의 체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물리적 자원(시설, 장서)과 인적 자원(사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사서는 단순한 자료 관리자가 아닌 정보서비스 전문가로서 이용자와 정보자원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 사서 인력의 적정 배치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대한 전문적 대응 능력 확보,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 등 도서관 고유 업무의 전문성 보장,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지속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윤희운, 2018).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양적 확산과 질적 수준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등록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등록제는 도서관 설립 시 시설, 장서, 인력 등의 종합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기본 요건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사서 배치 기준의 의무화를 통해 전문 인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등록제의 핵심 취지이다. 등록제는 도서관 정책이 양적 확충 중심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공공도서관 등록제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2022년 12월 8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공공도서관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정식 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체계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도서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등록제 도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의식 하에 도입된 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시설·장서·사서 배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사서요건, 시설요건, 도서관 자료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미등록 도서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되며, 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포상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셋째, 기존 도서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7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등록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였다.

도서관 설립·운영자는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 신청 시에는 도서관 시설 명세서, 장서 목록, 사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서류 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 이후에도 도서관은 매년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025년 5월 기준 공공도서관 등록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전국 공공도서관 등록 현황 (25. 5월 기준)

지역	시·도			교육청			사립			계	
	도서 관수	등록 건수	등록률 (%)	도서 관수	등록 건수	등록률 (%)	도서 관수	등록 건수	등록률 (%)	도서 관수	등록 건수
서울	183	160	87.4	22	21	95.5	7	7	100	212	188
부산	39	36	92.3	14	12	85.7	3	3	100	56	51
대구	31	21	67.7	10	10	100	8	8	100	49	38
인천	45	28	62.2	9	8	88.9	0	0	0	54	36
광주	24	14	58.3	6	6	100	0	0	0	30	20
대전	24	15	62.5	2	2	100	0	0	0	26	17
울산	18	12	66.7	3	3	100	0	0	0	21	15
세종	15	15	100	1	0	0	0	0	0	16	15
경기	307	96	31.3	11	10	90.9	5	5	100	323	111
강원	46	29	63	22	22	100	1	1	100	69	52
충북	40	15	37.5	15	7	46.7	1	1	100	56	23
충남	46	33	71.7	19	11	57.9	0	0	0	65	44
전북	49	37	75.5	18	12	66.7	1	1	100	68	50
전남	53	32	60.4	22	22	100	1	1	100	76	55
경북	47	44	93.6	27	25	92.6	0	0	0	74	69
경남	51	38	74.5	27	27	100	1	1	100	79	66
제주	16	16	100	6	6	100	0	0	0	22	22
계	1,034	641	62	234	204	87.2	28	28	100	1,296	872

출처 : 2025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872개관(67.3%)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설립주체별로는 교육청 도서관의 등록률(87.2%)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6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제주(100%), 세종(93.8%), 경상북도(93.2%) 순으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34.4%), 충청북도(41.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률을 기록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3. 사서 배치 기준과 정책적 함의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은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등록제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사서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첫째, 모든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서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 3명에서 1명 증원된 것으로, 도서관 운영의 최소 인력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만 명마다 사서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는 해당 시·도의 총 인구수를 해당 시·도의 관할 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는 개정 전 '봉사대상 인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도서관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서 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서는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되며,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취득자를 모두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채용신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않으며, 채용조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도서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정책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조항은 도서관 운영주체에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등록 기준 충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등록제의 본래 취지인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서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실제 운영 간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도서관 운영주체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비용이 낮은 비정규직 사서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등록제는 사서 인력의 양적 확충은 달성할 수 있지만, 고용 불안정성

증가와 서비스 연속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제 시행 이후 사서인력 증가의 실제 패턴을 고용형태별로 분석하여 정책 의도와 실제 성과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선행연구 분석

도서관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등록제가 2022년 12월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명희(2024)는 등록제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기 예상등록률이 26%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 관청들이 사서 확충의 어려움과 등록기준의 불명확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다고 분석하였다.

나은엽과 이세나(2024)는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전국 1,004개 공공도서관의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례 적용 도서관(135개관)과 미적용 도서관(869개관)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 수 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도서관이 절반 이상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70.8%, 세종 6.7% 등 등록 가능 비율에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례 적용 도서관의 현재 사서 수는 평균 2.9명으로 미적용 도서관의 6.3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방문자수와 대출권수도 30-39% 수준에 그쳤다. 특례 적용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90.5%), 전북(84.2%), 전남(80.0%) 순이었으며, 1관당 필요 사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5.7명), 충북(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12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도 실시하여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면담 결과, 사서들은 특례가 장기적으로 사서 인력 증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1인 사서 체제의 과부하와 서비스 질 저하를 지적하였다. 또한 특례가 도서관 발전보다는 등록률 제고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제 시행 결과는 초기 연구들의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등록률은 67.3%로, 윤명희(2024)가 예상한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등록률이었다. 다만, 2025년 전국 등록관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높은 등록률의 달성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등록률 상승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사서 신규 충원(3.3%)보다는 비정규직 충원(23.3%), 인구소멸지역 특례 적용(46.7%), 각종 완화 조치(36.7%) 등을 통해 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률 자체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 달성 방식이 등록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록제 관련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제 도입 초기 시점의 연구들로 제도

시행 이후의 실제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기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둘째, 등록제가 사서인력 확보에 미친 구체적 영향, 특히 고용형태별 변화 패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현장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통계적 검증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특례 제도나 현황 분석에 집중하여 등록제 시행 전후의 구조적 변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 다섯째, 높은 등록률과 그 달성 방식 간의 괴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록제 시행 전후 3개년간의 사서인력 변화를 고용 형태별로 분석하여 등록제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통계적 검증을 통해 등록제 시행이 사서인력 확충 패턴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 효과의 실증적 측면을 보완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도서관 등록제가 사서인력 확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첫째, 등록제 시행 전후의 사서인력 현황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시행 전 3개년(2019-2021)과 시행 후 3개년(2022-2024)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사서 인력의 양적 변화를 추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서의 증가 패턴 및 비중 변화를 구분하여 심층 분석한다. 특히 각 3개년 기간 동안의 증가율과 고용형태별 구성비 변화를 통해 등록제 시행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사서인력 확충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을 통해 등록제 시행과 고용형태별 증가 패턴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고, 관찰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규명한다. 효과크기(Cramer's V) 분석을 통해 등록제 시행이 고용패턴 변화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을 정량화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등록제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를 분석한다. 만약 정책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서관 등록제 시행이 사서인력 확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등록제 시행 전후의 사서인력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연구 기간은 등록제 시행 전 3개년(2019-2021)과 시행 후 3개년(2022-2024)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책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 전후 동일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외부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변화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서인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서의 연도별 증가율, 전체 사서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8.0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사서인력 현황 정리 및 증감을 산출을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등록제 시행과 고용형태별 증가 패턴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을 수행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의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대빈도가 5 이상 인지를 점검하였으며, 셀별 표준화잔차를 통해 어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변수 간 연관성의 실질적 효과크기 측정을 위한 Cramer's V 분석을 실시하였다. Cramer's V를 활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를 평가하였으며 .10 이상은 작은 효과, .30 이상은 중간 효과, .50 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하였다(Cohen, 2013). 모든 분석 결과는 정책평가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정책 의도와 실제 성과 간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기간 동안의 증가율과 고용형태별 구성비 변화를 통해 등록제 시행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등록제 시행이 사서인력 확충 패턴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등록제 시행 전후 사서 인력의 고용형태별 증가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활용하여 등록제 시행 시점과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사서인력 증가 패턴 간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V. 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입에 따른 사서인력 영향 분석

1.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 전 사서인력 증가 현황

등록제 시행 이전 3년간(2019-2021) 전체 사서인력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등록제 시행 전 사서인력 현황 (2019-2021)

연도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전체(명)	비정규직 비율(%)
2019	5,044	1,693	6,737	25.1%
2020	5,254.5	1,614	6,868.5	23.5%
2021	5,536.5	1,813.9	7,350.4	24.6%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제 시행 이전 3개년 동안 전체 사서 인력은 2019년 6,737명에서 2021년 7,350.4명으로 613.4명(9.1%) 증가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사서가 5,044명에서 5,536.5명으로 492.5명(9.8%)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사서는 1,693명에서 1,813.9명으로 120.9명(7.1%) 증가에 그쳐 정규직 증가율이 비정규직 보다 2.7%p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증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9-2020년 210.5명 증가, 2020-2021년 282명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2019-2020년 79명 감소했다가 2020-2021년 199.9명 증가하여 변동폭이 컸다. 전체 증가 인력 613.4명 중 492.5명(80.3%)이 정규직으로 확충되어 정규직 중심의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25.1%에서 2020년 23.5%로 1.6%p 감소했다가 2021년 24.7%로 1.2%p 상승하는 변동 패턴을 보였다.

등록제 시행 이전 3년간(2019-2021) 운영주체별 사서인력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운영주체별 사서인력 현황 변화 (2019-2021)

구분	2019	2020	2021	3년간 변화
교육청도서관				
도서관 수(관)	234	235	235	+1
정규직(명)	1,752	1,754	1,814	+62(3.5%)
비정규직(명)	292	196	215	-77(-26.4%)
전체 사서(명)	2,044	1,950	2,029	-15(-0.7%)
지자체도서관				
도서관 수(관)	876	914	949	+73
정규직(명)	3,292	3,500.5	3,722.5	+430.5(13.1%)
비정규직(명)	1,401	1,418	1,598.9	+197.9(14.1%)
전체사서(명)	4,693	4,918.5	5,321.4	+628.4(13.4%)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제 시행 이전 운영주체별 사서인력 현황을 분석하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청 도서관은 2019년 234개관에서 2021년 235개관으로 3년간 1개관만 증가하여 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정체 상태를 보인 가운데, 정규직은 1,752명에서 1,814명으로 62명(3.5%)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92명에서 215명으로 77명(26.4%) 대폭 감소했다. 연도별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2019-2020년에는 정규직이 2명 증가에 그쳤으나 비정규직은 96명이 감소했고, 2020-2021년에는 정규직이 60명 증가하고 비정규직도 19명 증가하여 전체 사서 인력은 2019년 2,044명에서 2020년 1,950명으로 94명 감소했다가 2021년 2,029명으로 79명 증가하여 최종적으로는 15명(0.7%)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14.3%에서 2021년 10.6%로 3.7%p 감소하여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개편되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은 876개관에서 949개관으로 73개관(8.3%) 증가하여 활발한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규직이 3,292명에서 3,722.5명으로 430.5명(13.1%) 증가하고 비정규직도 1,401명에서 1,598.9명으로 197.9명(14.1%) 증가하여 전체 사서 인력은 4,693명에서 5,321.4명으로 628.4명(13.4%)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정규직이 2019-2020년 208.5명, 2020-2021년 222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비정규직은 2019-2020년 17명, 2020-2021년 180.9명 증가하여 2021년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29.9%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 후 사서인력 증가 현황

등록제 시행 후 3년간(2022-2024) 전체 사서 인력은 <표 5>와 같다.

<표 5> 등록제 시행 후 사서인력 현황 (2022-2024)

연도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전체(명)	비정규직 비율(%)
2022	5,715.5	1,854	7,569.5	24.5
2023	5,854.5	2,073	7,927.5	26.1
2024	6,024	2,319	8,343	27.8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제 시행 후 3개년(2022-2024) 동안 전체 사서 인력은 7,569.5명에서 8,343명으로 773.5명(10.2%) 증가하여 시행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양적 확충이 지속되었으나, 고용형태별 구성에서는 뚜렷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사서는 5,715.5명에서 6,024명으로 308.5명(5.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 사서는 1,854명에서 2,319명으로 465명(25.1%) 대폭 증가하여 비정규직 증

가율이 정규직보다 19.7%p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증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2022-2023년 139명 증가, 2023-2024년 169.5명 증가로 소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2022-2023년 219명 증가, 2023-2024년 246명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체 증가 인력 773.5명 중 465명(60.1%)이 비정규직으로 확충되어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시행 전 3개년 동안 정규직 증가율 9.8%, 비정규직 7.1%에서 시행 후 3개년 동안 정규직 5.4%, 비정규직 25.1%로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특히 인력 확충 구성비에서 시행 전 정규직 80.3%, 비정규직 19.7%에서 시행 후 정규직 39.9%, 비정규직 60.1%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등록제 시행 이후 3년간(2022-2024) 운영주체별 사서인력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운영주체별 사서인력 현황 변화 (2022-2024)

구분	2022	2023	2024	3년간 변화
교육청도서관				
도서관 수(관)	235	235	234	-1
정규직(명)	1,856	1,863	1,864	+8(0.4%)
비정규직(명)	180	203	219	+39(21.7%)
전체 사서(명)	2,036	2,066	2,083	+47(2.3%)
지자체도서관				
도서관 수(관)	976	1,008	1,034	+58
정규직(명)	3,859.5	3,991.5	4,160	+300.5(7.8%)
비정규직(명)	1,674	1,870	2,100	+426(25.4%)
전체사서(명)	5,533.5	5,861.5	6,260	+726.5(13.1%)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제 시행 후 운영주체별 사서인력 현황을 분석하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간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교육청 도서관은 2022-2023년 235개관을 유지하다가 2024년 234개관으로 1개관 감소하여 시설 측면에서 정체 및 소폭 감소 상태를 보인 가운데, 정규직은 1,856명에서 1,864명으로 3년간 8명(0.4%) 증가에 그쳤으며 연도별로는 2022-2023년 7명, 2023-2024년 1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었다. 비정규직은 180명에서 219명으로 39명(21.7%) 증가했고, 연도별로는 2022-2023년 23명, 2023-2024년 16명 증가했다.

전체 사서 인력은 2,036명에서 2,083명으로 47명(2.3%)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8%에서 2024년 10.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확충 인력 47명 중 정규직은 8명(17.0%), 비정규직은 39명(83.0%)을 차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은 976개관에서 1,034개관으로 58개관(5.9%) 증가하여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규직 사서는 3,859.5명에서 4,160명으로 300.5명(7.8%) 증가했고 연도

별로는 2022-2023년 132명, 2023-2024년 168.5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사서는 1,674명에서 2,100명으로 426명(25.4%) 대폭 증가했고, 연도별로는 2022-2023년 196명, 2023-2024년 230명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체 사서 인력은 5,533.5명에서 6,260명으로 726.5명(13.1%) 증가했으며, 확충 인력 726.5명 중 정규직은 300.5명(41.4%), 비정규직은 426명(58.6%)을 차지하여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30.2%에서 2024년 33.5%로 3년간 3.3%p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정규직 증가율이 교육청은 3개년 동안 3.5%에서 0.4%로, 지방자치단체는 13.1%에서 7.8%로 모두 둔화된 반면, 비정규직은 교육청이 -26.4%에서 21.7%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14.1%에서 25.4%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체 사서인력 증가(773.5명) 중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726.5명(93.9%)을 차지하여 증가를 주도했다.

3. 시행 전후 비교 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등록제 시행 전후 사서인력 증가 패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통계량	값	자유도	유의확률(p)	Cramer's V
χ^2	228.749	1	< 0.001***	0.406

*주: *** p < 0.001

이러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등록제 시행 전후 사서인력 증가 패턴 비교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변화
전체사서 증가(명)	613.4	773.5	+160.1
정규직 증가(명)	492.5	308.5	-1.84
비정규직 증가(명)	120.9	465	+344.1
정규직 비중(%)	80.3	39.9	-40.4
비정규직 비중(%)	19.7	60.1	+40.4

카이제곱 검정 결과($\chi^2 = 228.749$, $df = 1$, $p < 0.001$)는 등록제 시행과 사서인력 고용패턴 간에 매우 강한 통계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임계값(3.84)의 약 60배

에 해당하는 극도로 큰 값으로, 관찰된 변화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Cramer's $V = 0.406$ 은 Cohen(2013)의 기준에 따른 중간 효과(.30) 이상의 상당한 효과크기를 나타내며, 등록제 시행이 사서 고용구조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등록제 시행을 기점으로 사서인력 증가의 구조적 패턴이 정책 의도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했다. 전체 사서인력 증가는 시행 전 613.4명에서 시행 후 773.5명으로 160.1명(26.1%) 확대되어 양적 확충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고용형태별 구성에서는 정책 목표와 대조되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력 확충 구성비의 완전한 역전 현상이다. 시행 전에는 전체 증가 613.4명 중 정규직이 492.5명(80.3%), 비정규직이 120.9명(19.7%)을 차지하여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확충 패턴을 보였으나, 시행 후에는 전체 증가 773.5명 중 정규직이 308.5명(39.9%), 비정규직이 465명(60.1%)을 차지하여 비정규직 중심의 확충 패턴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40.4%포인트라는 상당한 폭의 구조적 변화로, 등록제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점은 정규직 증가의 둔화와 비정규직 증가의 가속화이다. 정규직 증가율이 시행 전 3개년 동안 9.8%에서 시행 후 3개년 동안 5.4%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25.1%로 증가하여 시행 후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의 4.6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등록제가 의도했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서인력 확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비정규직 중심의 사서인력 확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chi^2 = 228.749$ ($df = 1, p < 0.001$)로 나타나 등록제 시행 전후 사서 인력의 고용형태별 증가 패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등록제 시행 시점과 고용형태별 사서인력 증가 패턴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효과크기 분석 결과 Cramer's $V = 0.406$ 으로 나타나 Cohen(2013)의 기준에 따른 중간 효과크기(.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등록제 시행이 고용형태별 사서인력 증가 패턴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등록제 시행 전후 사서 인력의 고용형태별 증가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당초 의도인 “정규직 중심 강화”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 중심의 확충 패턴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년 12월 도입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사서인력 확보에 미친 영향을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의 당초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등록제 시행을 기점으로 사서인력 확충 패턴이 구조적으로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chi^2 = 228.749$, $df = 1$, $p < 0.001$, Cramer's $V = 0.406$)는 Cohen(2013)의 기준에 따른 중간 효과크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등록제 시행이 사서 고용구조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시행 전 3개년(2019-2021) 동안에는 전체 증가 인력 613.4명 중 80.3%인 492.5명이 정규직으로 충원되어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인력 확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행 후 3개년(2022-2024)에는 전체 증가 인력 773.5명 중 60.1%인 465명이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어 40.4%포인트라는 상당한 폭의 구조적 역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고용형태별 증가율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규직 사서의 증가율은 시행 전 3개년 동안 9.8%에서 시행 후 3개년 동안 5.4%로 둔화된 반면, 비정규직 사서는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25.1%로 확대되어 시행 후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의 4.6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체 사서 중 비정규직 비율이 시행 전 24.7%에서 시행 후 2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서관 인력구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도서관의 경우 시행 전 3개년 동안 비정규직이 26.4% 감소하던 추세에서 시행 후 3개년 동안 21.7% 증가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은 비정규직 증가율이 시행 전 14.1%에서 시행 후 25.4%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체 사서인력 증가(773.5명)의 93.9%를 차지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30.2%에서 33.5%로 상승하여 고용 불안정성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등록제가 의도했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서인력 확보”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한 사서인력 확보”를 촉진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우려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등록제가 전문 인력 확보 효과보다는 형식적 기준 충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이 사서 배치 기준에서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만을 중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준은 도서관 운영주체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등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 왜곡 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등록제는 당초 목표였던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등록제 가이드라인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이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정규직 사서 비중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 등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사서 고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단순한 수적 확보를 넘어 도서관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며, 정규직

사서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도서관에 대한 단계적 개선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석 기간이 등록제 유예기간(2022.12-2024.12)에 해당하여, 관찰된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 부문의 인력 확충은 예산 편성과 조직 개편 등 중장기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등록제 시행 이후 장기적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서인력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사서의 전문성, 업무 만족도, 서비스 품질 등 질적 측면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비정규직 사서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서비스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서 인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용형태 변화는 정책 설계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등록제가 사서인력의 양적 확충을 가져왔으나, 고용의 질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책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서의 고용형태가 실제 도서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등록제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심층 분석 등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그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은 사회 전체의 지적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등록제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실증 연구로서, 비록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정책 개선과 후속 연구를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실증적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공공도서관협의회 (2025. 8. 27.). 공공도서관 등록제 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도서관.
- 권나현 (2017). 공공도서관 사서배치현황과 법정 배치기준의 타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4), 183-201.
-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 김효윤 (2022).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실효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123-135.

- 관·정보학회지, 53(3), 119-135.
- 나은엽, 이세나 (2024). 공공도서관 등록제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 적절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265-290.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8547호.
-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772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www.libsta.go.kr/>
- 문화체육관광부 (2022. 5. 27.).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윤명희 (2024). 공공도서관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관청 인식에 관한 연구: [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1(1), 31-58.
- 윤희윤 (2018). 도서관 사서배치의 법리적 쟁점과 법제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20.
- 한국도서관협회 (2019. 7. 26.).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회도서관.
- 행정안전부 (2025). 정보공개포털. 출처: <http://www.open.go.kr/>
- Cohen, J. (2013).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York: Routledg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Hyo-Yoon (2022). Effectiveness analysis of preliminary evaluation of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feasibility based on the revised library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119-135.
- Kim, Young-Seok (2013).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aff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23-342.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9, July 26). A Collection of Materials for the National Assembly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Seoul: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May 27). A Collection of Materials for the Briefing Session on the Amendments to the Library Ac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Public Library Registration Work Guideline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5).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Public Library Statistics. Available: <http://www.libsta.go.kr/>
- Korea.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5).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Available: <http://www.open.go.kr/>
- Korean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25, August 27).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Symposium Proceedings. Seoul: Seoul Metropolitan Library.
- Kwon, Nahyun (2017). An analysis of staffing of public librarians and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4), 183-201.
- Rha, Eun Youp & Lee, Sena (2024). Explo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pecial provision for depopulated areas of the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4), 265-290.
-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31772.
- The Library Law revised in its entirety Act No. 18547.
- Yoon, Hee-Yoon (2018). Legal issues and legalization of librarian placement for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20.
- Yoon, Myung Hee (2024).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gistration authorities: focused on [Law No. 18547, Comprehensive Amendment, December 7, 202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1-58.